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school)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리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피난처 있으니(찬79/새70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광영 집사 2부/김건성 장로 3부/홍대원 장로 4부/이서원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하나님의 은혜(작곡 신상우)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부/눅 10:25-37 2부/눅 15:17-24, 롬 8:14-17 All together 다같이
3부/수 6:6-11 4부/막 4:21-34
- 말씀 Message 1부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Rev. JongHun Joo 주종훈 목사
2부 아바 아버지 Rev. SeungWon Jung 정승원 목사
3부 승리 Rev. Youngcheon Jo 조영천 목사
4부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11) 겨자씨, 나무가 되다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2부/아바 아버지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해산의 수고를 자랑하는 엄마는 없다

No Mom Boasts about Her Childbirth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한여름의 뜨거운 기도 바람을 타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격려를 느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무거운 발걸음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밀어주는 듯한 기도의 바람으로 한결 고무되어 신이 나는 새벽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새벽에 주신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믿는 성도로서 가진 자유함이 얼마나 큰 힘인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애를 낳아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갈 4:19)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애 낳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가 감당한 수고를, 해산하는 수고에 비교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유함’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희생적인 수고를 하고 난 뒤, 그 수고를 미화하고 알리는데 이력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가장 극심한 고통인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도, 자기의 이력을 더하기보다는 ‘자유자’로 섬기는 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 서넛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고생한 이야기에 살을 붙여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생을 자랑하고픈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인가, 종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바울은 많은 신자가 자기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자랑하는 나머지, 종처럼 섬기는 자들임을 이 비유를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도는 은혜입니다. 수고가 우리의 경력이 되어 섬김의 자랑으로 누가 더 큰 자인지 경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나뭇은 ‘은혜’이지 나의 경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매일 싸우는 세상의 싸움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랑할 것이 많은 바리새인 보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들을 찾아가셨나 봅니다. 예수님은 당시 성전을 보시면서 강도의 굴혈되었다고 한탄하셨습니다.(마태복음 21장) 왜냐하면 만민이 기도하며 죄인들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와야 할 곳이, 자기 자랑을 모아 경쟁하는 장소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수고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러나 애를 낳고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랑하는 엄마가 없듯이, 복음을 위한 수고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억지로 하는 노예의 수고로 전락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노예가 아닌 자녀로 섬깁시다. 조금 일했다고 생색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나보다 좀 더 일 잘하고 인정받는 자를 시기하는 노예가 되지 맙시다. 이제부터 진통보다는 낳은 아기를 자랑하는 엄마처럼, 내 수고보다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를 자랑하는 자녀가 됩시다

I am so thankful for the time I prayed together with Bethel congregation, riding on the prayer wind in mid-summer. I felt we could do anything as long as we did it “together”. I felt God’s unimaginable encouragement through our time “together” in prayer. It was early morning prayer time of inspiration and excitement. It was as if prayer wind was nudging from behind, like God’s gentle hands, on our heavy footsteps to climb uphill.

God’s encouragement came to us early morning with words of Galatians. It was a time of realizing the strength of freedom that belongs to those that believe in the Gospel. Apostle Paul, who never experienced childbirth, said, “My dear children, for whom I am again in the pains of childbirth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Ga 4:19). People say the greatest pain a person can experience is childbirth. Paul compares his labor for the Gospel to that of childbirth. What’s more amazing is that, as he speaks on childbirth, he is speaking of ‘freedom’. When we labor sacrificially, we tend to glorify the labor and announce it. However, despite Apostle Paul’s extreme labor, like that of childbirth, he said he did not do the work to add to his accomplishment, but that he did this to serve as a ‘free man’.

When three to four Korean men come together, they typically speak about their military experiences. They speak about their suffering in the military with a bit of exaggeration. It expresses men’s desire to boast about their suffering. While Paul asks whether you are a child of free woman or slave, he points to those that serve like slaves boasting about one’s own effort, dedication, and sacrifice. The way of the Gospel, that we believe in, is grace. Our labor does not become our experience that is used to compete who is greater and boast with pride for serving. That’s because I am who I am by ‘grace’, and not by my experience. Grace is completely opposite to our daily battles with the world. Perhaps, that is why Jesus came seeking sinners who had nothing to boast about, rather than Pharisees who had a lot to boast about. Jesus lamented that temple has become a den of robbers (Matt 21). That is because the place where everyone should come to pray and sinners to seek grace has become a place of competing and boasting one’s pride.

Labor for the Gospel is like labor of childbirth. No mom boasts about her childbirth. Labor for the Gospel should be the same. It would be foolish if our labor becomes like that of a forced labor of slavery. Let’s serve not as slaves but as His children. Let’s not become slaves that want recognition for their service or become envious of those that are being recognized for their good works. Like moms who boast about their babies rather than their childbirth, let us become children who boast fruits of God’s work.

주일 설교노트 / 나눔교재

- 1부: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누가복음 10:25-37) 주종훈 목사
- 2부: 아바 아버지 (누가복음 15:17-24, 로마서 8:14-17) 정승원 목사
- 3부: 승리 (여호수아 6:6-11) 조영천 목사

적용하기



베델 제자훈련

잡을 때와 놓을 때

<바이블 클럽>



예배 중에 바이블 클럽 광고를 보고 97일 성경 1독을 신청했는데 매일 읽어야 하는 성경의 양이 많고 앞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도 나눠야 함을 보고 종일 아이들 돌보랴 시간이 없겠지 싶어서 다음에 해야겠다는 연약한 생각이 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팀장이라는 직분을 주셔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주셨고 성경 통독을 완료한 지금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성경을 읽을 때는 스스로와 타협도 많이 하고 아이들을 재우다가 잠들어서 미루기도 했었는데 팀원들과 함께 읽으니 책임감도 생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눌 때 같은 구절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고 저에게 주신 은혜는 몇 배나 더 되었습니다.

특별히 일하시고 아이들 돌보시며 타주와 한국에 계시면서도 말씀 통독과 묵상, 나눔, 서로를 위한 기도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올려주시는 2팀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토하고 삼킴의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 중이었는데 통독을 마친 지금 헛수도 많이 줄고 밥도 삼키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함께 기도해주시고 기도문을 올려 주시는 모습을 통해 저도 우리 팀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 힘써 기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보기도를 통해 기도 제목에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함께 성경 읽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합니다.

유승아 집사



나의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 바이블 클럽을 등록하게 된 계기는 말 그대로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깨우침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독을 여러 번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

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말씀은 제대로 알고 있냐고 물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스케줄을 생각했으면 시작도 못 했겠지만 일단 시작했고, 혼자가 아니라 바이블 클럽을 함께 하는 성도분들이 계셔서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눈물을 쏟기도 하고, 중간에는 율법을 지키듯 하다, 또 조금의 시간이 지나니 말씀이 우선시되는 시간도 왔습니다. 바이블 클럽기간 동안, 마치 나의 믿음을 시험하듯 여러 가지 환난의 일들이 있었지만, 살기 위해 붙잡았던 말씀 읽기가 어느새 나를 살리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살기 위해 택한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울이 된 것 같습니다. 낮아지기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비추어 보니 나에게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비로소 모래알만한 지식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딸이 된 듯합니다. 사역자분들의 헌신에도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은영 집사

<전도 폭발>



"복음을 들어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들으시는 분들은 저마다 새로운 은혜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스스로 잘 믿고 있다 생각한 분들이었지만 내가 여전히 지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구원 받았기에 감사하여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50여명의 대상자를 만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간증을 통해 저 역시 지독한 죄인이고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그때마다 다른 모양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전도에 소심했던 이기적인 저에게 하나님은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5단계 훈련은 마쳤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훈련이 아닌 실전으로 나아가 복음의 삶을 살면서 바울과 같이 누구에게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해 봅니다.

오은옥 권사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이번 전도 폭발 2단계 과정에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던 심도 있는 수업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 삼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보다 더 나은 올바르고 충성된 사람을 찾아 주님의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고 제자들 앞에서 친히 행하심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내가 찾은 그 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또 다른 이들을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도 폭발 훈련을 같이하자고 전할 때 '전도는 내 성격과는 잘 맞지 않는다, 너무 바쁘다, 다음 기회에 하겠다...' 등,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길에 한 걸음을 내딛음에 망설이는 이들을 볼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둡고 탁한 세상이 나아지기를 그쳐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갈고닦아 복음을 들고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 나서 제자 삼아 가르쳐 전하여 구주의 사랑을 행함으로 그들을 둘러싼 세상을 구원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 생산이 바로 전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위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열매를 계속하여 맺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주요 목표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려 불에 던져진다는 말이 두렵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이 사랑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다음 단계에는 더욱 많은 분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기쁨과 그 사랑을 나누길 바라며 준비합니다.

최동주 집사

새가족 사역

은혜의 보톡스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말 그대로 주말 교인으로 지내오던 중, 아내와 1살 된 어린 딸을 데리고 한국을 떠나 알칸사스(Arkansas) 주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두에게 힘들었던 IMF사태를 겪으며, 저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가정을 돌보던 때가 떠오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기도로 도와주셨던 그 당시 교인분들의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19년 전 이곳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뿌리내리며 감사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올해 2월, 하나뿐인 딸이 베델 교회 교육 전도사님과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식 준비를 위해 몇 차례 방문했던 베델 교회에서 느끼게 된, 마음 모를 따뜻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온라인으로만 찾아 들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결혼식 감사 인사차 방문하여 드리게 된 주일 현장 예배에서 주셨던 말씀은 저와 저희 가정에는 또 다른 인도하심과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느낌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같은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서로 격려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한 뒤 새가족 과정에 등록하여 환영회에도 참석하였는데 사랑과 헌신, 진정한 기쁨으로 모임을 섬겨 주시는 많은 성도의 밝은 모습 속에서 또 한 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어진 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섬기며 순종하는 베델 교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혁 성도



베델교회에 와서 나는 이 미국 땅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한국인의 성전 건축을 보고 몹시 놀랐고, 나의 교적 번호 10595를 보고는 많은 성도님의 숫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란 것은 이 아름다운 교회의 정원에 꽃 한 포기 심겨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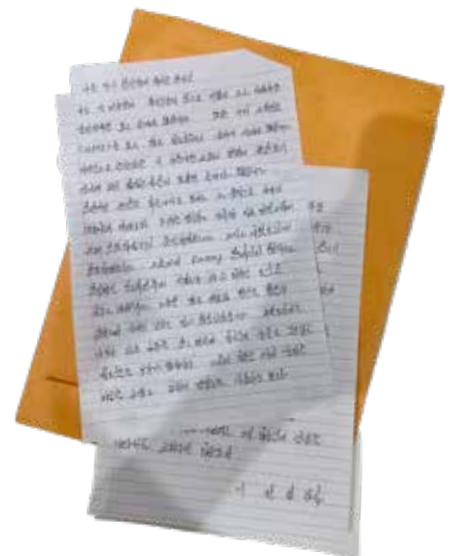
일 년 여전, 큰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 충격으로 아내의 건강마저 위태로워 주위를 정리하고 이곳으로 이사하여 올해 1월부터 베델교회에 출석하면서 사별 모임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인도하심 속에 진행된 13주간의 모임을 통해 많은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 있었으며 아내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별 모임에는 나보다 더 큰 아픔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저는 자연스레 교회의 빈 땅에 아름다운 꽃과 정원수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주차장 길가에 심어놓은 흰 장미와 부겐빌라 중 한 나무가 말라죽은 것을 보고 한 여자 성도님이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 싹트물을 가져다 부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님이 있다는 것에 감동하여 메모리얼 데이 연휴 때 그 나무와 똑같은 나무를 찾아 이전에 살던 곳까지, 왕복 160마일이 넘는 곳을 찾아가 나무를 사다가 교회 마당에 심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나무와 똑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아름다운 베델교회 정원 꾸미기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선엽 성도



작년 3월, 미군이었던 남편을 만나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까지 저는 나름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로 한국에 자주 오가게 되면서 몸과 정신이 몹시 지쳐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믿지 않는 남편은 같이 교회에 가지며 저를 일으켜주었습니다. "다음에, 다음에"라며 미루던 저의 모습은 부끄러웠지만,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델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 후, 저희 부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 좋은 에너지를 느꼈고 그 후 망설임 없이 베델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베델교회는 지쳐있던 저에게 일주일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저도 베델의 한 성도로써 많은 분에게 선한 영향력과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교회 정착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홍단비 성도



가정회복 구역 - B+B

주님의 맛춤형 톱니바퀴



6월 말의 화창한 토요일, B+B(사별 모임) 제7기를 마무리하는 아유희가 교회 근처 메이슨 파크에서 있었습니다. 반가운 만남과 잠시, 공원에 마련해 놓았던 자리가 없어져 순간 혼란이 있었지만, 모두가 힘을 합하여 순식간에 천막과 테이블이 잔디밭에 펼쳐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의미는 회복, 곧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김홍식 목사님의 말씀에 이어 풍성한 음식과 교제로 모두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든든한 믿음의 동지로 이 만남이 지속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별 이후 아들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며, 슬퍼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장성한 어른이 되었고, 홀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질 무렵, 코로나를 겪으며 홀로 계신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리게 되면서 깊은 허무함과 우울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도사님의 권유로 참여하게 된 사별 모임에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과 사별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듣게 되니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제 안의 슬픔과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매시간 영상을 통해 배우는 말씀과 간증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와, 외면하고 있던 아픔을 차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며 공감하는 사별 모임을 통해, 저의 깊은 우울감은 치유되었고 세상에도 없는 가족보다 더 끈끈한 믿음의 가족이 생긴 것 같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픔은 감추고 외면하고 숨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주님이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듯이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모임으로 나아와 함께 삶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아 든든히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별 모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혜선 집사

베델 선교 - 일본

멀어도 한 가족



영어 고등부는 2022년 여름에 온라인을 통하여 일본에 계신 강민숙 선교사님, 예스터 사모님, 두 딸(세라와 레이첼)과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일본 현장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시고 저희는 온라인으로 선교사님과 함께 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일본 인구는 2022년 기준 124,214,766명이며 수도는 도쿄입니다. 인구밀도는 일본인(97.9%), 중국인(0.6%), 한국인(0.4%), 외국인(1.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는 신토종교(48.6%), 불교(46.3%), 기독교(1%), 그 외의 종교(4%)로 되어있습니다.



강선교사님 가족이 여름성경학교를 그곳에서 여름 영어 캠프라는 이름으로 동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들이 함께 섬길 수 없음이 안타깝지만 온라인으로 영어 고등부 선교팀이 리드해 가게 됩니다. 저희가 크래프트와 비디오 등 다른 자료들을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으며, 그 자료들을 이용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영어 캠프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여름 성경학교는 그곳의 봉사자들과 부모님들께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복음이 일본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이 사역을 인도해주시

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일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여육제 목사 (818)270-5454

기도해
주세요

1. 여름 성경학교에 등록한 모든 학생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2. 그곳에서 섬기실 부모님들과 봉사자들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세주로 만날 수 있기를
3.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그곳 현장의 안전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4.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현지인들의 신앙의 시작과 부흥이 펼쳐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람/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목사/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CIM 여름 수련회

지역광고

성경적 성교육 등록

2022년 한어 중고등부(CIM) 여름 수련회 주제는 'Reset'입니다. 작년 빌립보서 강해 '기쁨으로 리셋'의 은혜를 기억하며, 올해 후반기의 새로운 시작 앞에서 다시금 'Reset'하는 수련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마음과 습관과 삶을 리셋하고 싶은 중, 고등학생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녀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 기간: 8월 11일(목)~8월 13일(토)
- ▶ 장소: 갈릴리 수양관
- ▶ 일시: 8월 11일(목) 오전 9시 교회 집합
8월 13일(토) 오전 1시 교회 도착
- ▶ 강사: 저녁 집회-박성권 목사, 큐티 특강-조태현 목사
- ▶ 등록 방법: QR 코드 속 구글 링크
또는 CIM 주일예배 현장 접수.
- ▶ 등록비: \$150 (2명 이상 자녀, 목회자 자녀 \$130)
- ▶ 등록 마감: 8월 10일 오후 7시
- ▶ 문의: 김도석 집사 (714)401-0532
이형석 전도사 (714)944-8339



우리 자녀들은 비성경적인 교육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가정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남자와 여자)은 가짜이며, 진짜는 나를 test해보면서 알아가는 gender(성별)가 진짜라고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새롭게 준비된 베델 Purity program! 말씀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순결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 대상: Purity Kids 4-5학년(2021-22년도)
Purity Teens 6-8학년(2021-22년도)
Purity Young Adult 9-11학년(2021-22년도)
- ▶ 일시: 10월 2일(주일)-23일(주일)
매주 오후 1시-4시(4주 과정)
- ▶ 순결 서약식: 10월 29일(토) 오전 11시-오후 3시
- ▶ 참여 방법: 인원이 한정되어 인터뷰 후 선발된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부모님께서 학부모 세미나를 참여해야 인터뷰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 ▶ 등록: 7월 17일(주일)-7월 31일(주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 ▶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7,8월)	7/24: ①부-김병주	②부-김진원	③부-김주홍	④부-조성현
	7/31: ①부-강현석	②부-고석민	③부-곽태일	④부-최도아
	8/7: ①부-권순렬	②부-김건수	③부-김교식	④부-최재환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7,8월)	7/23: 박재홍	7/30: 박제균	8/6: 박상범	8/13: 백권기
강단꽃(7,8월)	7/17: 기정호, 김창남	7/24: 박재영	7/31: 이 청, 김지원	8/7: 최호경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한지연(소아과), 간호사-이혜경

다음주 | 의사-이석완(심장내과), 간호사-강지원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희바(배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6차 신학강좌 강사셨던 주종훈 목사(1부), 정승원 목사(2부), 조영천 목사(3부)께서 주일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제1회 목목탕 THINK 목회세미나** 큐티하는 교회와 가정을 세우고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목회자들과 셀목자님들 외에 큐티 목상에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셀목자님들은 꼭 참여하셔서 셀모임의 나눔을 위한 훈련과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8월 1일(월)~8월 3일(수), 본당
접수기간/신청: 7월 11일(월)~7월 23일(토), 베델교회 홈페이지 (bkc.org)
참가비: \$100(베델교회 성도에 한하여 \$50) *교재와 식사제공

◆ **수요예배 안내** "이제부터 기도, 다시 시작"이란 주제로 이충경 목사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참여하시어 뜨거운 기도와 말씀의 나눔으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매주 오전 10시, 본당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방영됩니다.
문의: 박재영 집사 (714)980-1653

◆ **제직회** 7월 23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에 본당에서 제직회로 모입니다. 제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회복사역 Beyond the Blue(B+B) 연합 여름 수련회** 지난 1-7회까지 저희 B+B 사역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수련회를 갖습니다. 이 수련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시/장소: 8월 5일(금)~8월 6일(토), 갈릴리 수영장
출발 시간: 오후 4시 출발 예정
문의: 정우영 장로 (949)943-7320, 이란혜 전도사 (949)422-8828

◆ **영어 중고등부(BYM)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가 함께 가는 이번 BYM 수련회에 자녀들의 많은 참여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 8월 8일(월)~8월 11일(목), Oak Glen Christian Center
문의: 여옥제 목사 (818)270-5454, 현호승 전도사 (949)677-4911

◆ **한어 중고등부(CIM) 여름 수련회** 여름 수련회에 한어권 자녀들의 많은 참여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7면 참고)
기간/장소/회비: 8월 11일(목)~8월 13일(토), 갈릴리 수영장, \$150 (2명 이상 자녀 \$130)
문의: 이형석 전도사 (714)944-8339

◆ **소망부(HOPE Ministry) 여름성경학교** 소망부 VBS를 돕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며, 자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부 VBS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며 예수님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일시: 7월 19일(화)~7월 22일(금), 오전 9시~오후 2시

◆ **베델 아기학교 교사 모집** 아기학교가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모든 분의 지원 바랍니다.
문의: 이진영 전도사 (949)616-9667

◆ **교회학교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교사와 TA), K-1(3부 TA), 초등부 (2,3부 교사와 TA)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선정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교회학교 큐티인 섬머챌린지** 교회학교에서 7-8월 두달간 큐티인 섬머챌린지를 진행합니다. 두달간 매일 큐티를 한 친구들은 시상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집중적으로 큐티인을 통해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베델의 모든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7월 큐티인 교재는 실내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7월호 교회학교 큐티인 판매** 영문 7월호 큐티인이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7월호가 추가 오더 되어 재고가 준비되어 있으니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실내카페에 들리셔서 구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오실 경우는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성경적 성교육 Purity 프로그램** 새롭게 짜여진 Purity 프로그램을 통해 베델의 자녀들이 말씀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순결을 배우는 시간에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7면 참고)
등록 기간: 7월 17일(주일)~7월 31일(주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상: Purity Kids(4-5학년), Purity Teens(6-8학년), Purity Young Adult(9-11학년)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 **기도해 주세요**
- 예살 필라델피아 단기선교가 7월23일(금)~7월 30일(토)까지 있습니다.
- BYM Watts 단기선교가 7월 16일(토)~7월 22일(금)까지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 최재환/진수연 집사 가정에 딸 유나(Olivia)가 7월 14일(목)에 태어났습니다.
- 김철 집사/김경숙 권사의 아들 Simon 형제와 Tiffany 자매의 결혼식이 7월 17일에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오경옥 권사님(오성남 집사 모친, 오경이 권사 시모)께서 7월 8일(금)에 뉴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오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현리 집사, 박진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영장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 1st: **Grace of Christ and Church** (Luke 10:25-37) Rev. JongHun Joo
- 2nd: **Abba Father** (Luke 15:17-24, Rom 8:14-17) Rev. SeungWon Jung
- 3rd: **Victory** (Josh 6:6-11) Rev. Youngcheon Jo

Apply to Life

